4·3유족 첫 기증유물전… "위로·공감 되길"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
현의합장묘 조성 시기 영상
4·3당시 생활용구 등 한자리

제주4·3평화재단이 마련한 4·3유족의 첫 기증유물 기획전시가 20일 개막해 손님을 맞고 있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이상국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 4·3유족의 첫 기증유물 기획전을 마련했다.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도민·유족의 참여를 북돋고자 기획된 자리다. 20일부터 제주4·3평화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기념관 개관 이래 오로지 4·3유족의 기증유물로만 이뤄지는 첫 전시여서 눈길을 끈다.

첫선은 70여년 전 제주4·3 때 부친과 형을 잃은 4·3유족이자 전 현의합장묘 4·3유족회장인 양봉천 씨의 기증 유물 전시로,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전시장은 현의합장묘 조성 상황을 돌아보는 당시의 기록과 영상, 사진을 비롯 4·3당시 사용되던 생활용구 등으로 전시 공간이 채워졌다. 의귀리 현의합장묘 조성 시작부터 4·3이후의 시간을 증언하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현의합장묘 조성 시기에 촬영된 비디오와 축문 등의 자료가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다.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은 이번 기획전을 열며 "4·3으로 희생당한 아버지와 형을 회상하게 하는 양봉천 전 현의합장묘 4·3유족회장의 기증품은 비극을 견뎌내고 제주문화의 공동체를 묵묵히 만들어 온 유족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며 "기증유물전시가 기증자에게는 보람과 위로의 시간으로, 관람객에게는 공감과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4·3평화기념관은 앞으로 심층 조사를 더해 기증자들의 이야기를 보완하고, 이후 기증자료의 지속적인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연극 언어로 풀어낸 재일한국인 이야기

극단 노뜰 디아스포라 연작 Ⅰ '이방의 물고기' 제주 공연

이방의 물고기

강원도 원주를 기반으로 전 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쳐온 극단 노뜰(대표 원영오)이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분석하고 여정을 따라가는 새로운 연작 '디아스포라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을 제주 무대에 올린다.

이달 29·30일(오후 7시30분)과 31일(오후 3시)까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블랙박스공연장 'Be IN;(비인)'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신작은 디아스포라 연작 Ⅰ '이방異邦의 물고기'. 일본 오사카로 밀항한 재일한국인의 삶과 역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극단 노뜰 구성원들은 작품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며 현지 리서치,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채집한 자료들을 분석·집약해 연극적 구성으로 풀어냈다. 간드락(대표 오순희)과 공동 기획한 작품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함께 만들고, 또 작품의 주요 리서치가 제주에서 시작되고 진행됐기에 극단 노뜰은 "이번 제주에서의 신작 공연이 더욱 의미있는 이유"라고 했다.

티켓 예매는 비인티켓(https://www.be-in.kr) 등에서 가능하다.

한편 극단 노뜰은 리서치 기반의 창작 프로젝트 '디아스포라 3부작'을 매년 1편씩 선보일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소프라노 강정아 디지털 싱글앨범 발매

소프라노 강정아가 '제주 속의 여인들 vol.1'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디지털 싱글앨범을 내놓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두 곡의 창작 가곡은 이달 23일('백동백'/작시 김성·작곡 최진)과 27일('백 년을 먼저 불던 바람'/작시 허영선·작곡 나실인)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소프라노 강정아는 "제주의 여성 선각자 및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분들을 발굴해 창작 가곡으로 발표하는 프로젝트의 바람을 담아 이번 음원을 발매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번 디지털 싱글앨범 발매를 통해 일회성 가곡 발표 음악회로 끝나는 창작 가곡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방송과 미디어 영상제공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음악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관 <333>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우멩이 골멘, "경훈디양, 바릇궤긴 어느제랑 먹어보카양? 바당이 갓단 온 지도 막오래뒈언양. 성창에 갈 적인 나도 돌앙갑서양."
좀녜 골앐저, "경후라. 그디 갈 적인 아척 인칙 촐려사 훈다. 궤깃배가 성창에 들어오민 무실사름덜이 하영 모다들메. 느나웃이 궤기가 팔딱팔딱후는 바릇궤기를 초지후여보젠덜 경후주게.
우멩이 골멘, "새벡이나 밤인 배덜이 어떵 성창에 드나들앐수과? 바당이 막 어둑을건디양. 바당엔 큰 바우영 족은 바우덜토 하영 이실건디 어떵 바당질을 촛앙 고양고양 가지카양."
하르바지 골멘, "우멩이가 궁금후연 들어봤구나. 어둑으민 등명대(옛등대)에서 붉으렝이 비쳐주는 불빛에 바당질을 촛앙 멩심후멍 들어오주. 날이 어둑우민바당이 막 위험후주게."

*** 제주어 풀이**

*바릇궤기(개又궤기, 개又궤기, 갯겟궤기, 바당고기, 바당궤기, 바릇궤기, 바르코기, 바르궤기) : <이름>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통틀어 일컫는 말. *어느제랑 먹어보카양? : 언제 먹어볼 수 있어요?
*갓단 온 지도 : 갔다 온 지도
*오래뒈언양 : 오래되었네요.
*성창(개, 개맛듸, 개창, 갯맛, 갯머리, 게, 게맛) : <이름> 갯머리. 배를 매는 곳.
*궤깃배가 성창에 : 고깃배가 갯머리에.
*들어봤구나 : 들어보고 있구나.
*어둑으민 등명대(옛등대)에서 : 어두우면 등대에서.
*붉으렝이 비쳐주는 불빛에 : 밝게 비춰주는 불빛에.
*바당질을 촛앙 : 바닷길을 찾아서.
*멩심후멍 들어오주 : 주의하면서 들어온다.

고재만 화백(전문가)

제니크퀸텟만의 매력… '살롱 드 제니크'

제니크퀸텟이 세 번째 정기공연 '살롱 드 제니크(Salon de Jenique)'로 매력을 발산한다.

제니크퀸텟은 "'살롱 드 제니크'란 제니크의 공간이라는 뜻으로, 고유한 색이 담긴 음악으로 연주자와 관객이 소통하며 제니크퀸텟만의 매력을 흠뻑 체감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고 전했다.

클래식에 기반을 두고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연주팀 답게 제니크퀸텟은 이번 정기공연에서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애니메이션 OST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피아노 5중주로 편곡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테마곡도 준비했다.

공연은 이달 23일 오후 7시30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Be IN;(비인)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좌석 1만원. 예매는 비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은지기자

진급 축 CONGRATULATIONS
육군준장

양 진 혁

육군준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양씨천호공파종친회
회장 **양 택 훈** 외 **종친 일동**
제주양씨천호공파연동계문중회
회장 **양 석 진** 외 **종친 일동**

수상 축 CONGRAT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오 철 훈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도초등학교 64회 동창회
회장 **정 영 근** 외 **회원 일동**

수상 축 CONGRATULATIONS
새마을훈장 자조장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체육부문)

전 문 수

이 동 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양동체육회

수훈 축 CONGRATULATIONS 수상
국민훈장(모란장)
한국경제문화대상(언론부문)

이 용 탁
(JIBS 대표이사)

2022년도 **국민훈장(모란장) 수훈**과
한국경제문화대상(언론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지리민 일동